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 일 시 : 2025. 8. 25(월) 11시
-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 연수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우입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님도 계시고 기존 위원님도 계시는데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존 위원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어 도병두 위원과 고영찬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1인 추천 시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가결시키거나, 2인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되, 다수결 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분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만 위원** 개별로 묻습니까? 일괄적으로 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우** 추천을 받습니다.

○**김용만 위원** 김진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우**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관 위원** 김진우 위원님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우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본인이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우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우입니다. 먼저 저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위원장 김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박기영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박기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영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기영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진우 위원장님과 함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연수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김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의원 해외비교시찰 연수에 대하여 간사인 김병훈 의정팀장의 개괄적인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병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비교시찰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기간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으로 주요 방문도시는 호주의 브리즈번·골드코스트·시드니이며, 공식 방문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기관, 골드코스트시청, 블랙타운시의회, 시드니시청,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 등 5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바랑가루 보호지역, 뉴사우스웨일스 미술관, 시드니대학교 등 도시재생교육 및 문화 관련 주요 시설을 시찰하여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금천구 전체 발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외 비교시찰은 금천구가 직면한 도시재생 산업구조 전환, 스마트시티, 환경정책, 복지 및 의정운영 등 주요현황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호주의 여러 도시로 시찰지를 선정하였으며, 브리즈번은 산업구조 재편과 친환경 도시정책, 골드코스트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과 문화도시 조성 모델, 시드니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전략과 지방의회 운영 사례 등 금천구의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전략 수립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번 연수단 구성은 총 14명으로 금천구의회 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입니다.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해외 선진도시에 지방자치 관련 행정·의정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복지·친환경·도시재생·문화·관광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현안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관 관계자와의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우수 경영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안대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해외 비교시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김병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외출장 목적대로 비교시찰을 잘하셔서 금천구 의정활동의 내실화라든지, 금천구 주민 발전에 조금 더 유익한 해외 공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에 앞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상 위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편 별표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첫째,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둘째,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셋째,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이상 3가지의 요건들이 타당한지를 중점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검토시간을 가진 후 의견교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 검토시간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3분은 적어요. 3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우 그래요? 10분으로 할까요?

○김용만 위원 10분은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그러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말씀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예를 들어 방문 국가의 방문 기관의 타당성에 보면 문제가 6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첫 번째로 출장의 필요성 3가지가 있는데 적은 것은 하나로 표시를 하고, 6개 정도 되는 것은 2가지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요?

○위원장 김진우 각 항목마다 “예, 아니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 체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만 위원 각 항목마다 하나씩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진우 예.

○김용만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간사님께서서는 심사기준에 보면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는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심사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까 김병훈 팀장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8조를 보시면 첫 번째, 출장의 필요성 3가지 문제가 나왔고 답이 3가지 중에서 “예, 아니오”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의 필요성 이 3가지가 이미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예, 아니오”를 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건건마다 “예, 아니오”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사 김병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건건마다 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진우 김병훈 간사님께서서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관 위원** 간단한 것보다 항목 이외에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중에서도 방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우리가 그전에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모르잖아요. 또는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여기에 부합되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8조는 형식이 불과한 것입니다. 의원이라고 뽑아서 얹혀놓고 정말 4,8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좋은 목적과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가서 보고 와서 금천구민의 좋은 일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종이만 던져놓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 설명도 없어요. 오늘 이상학 위원님은 처음 오셨는데요. 이상학 위원님,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학 위원** 저는 처음 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김용만 위원** 전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충설명입니다.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3가지 및 6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예, 아니오”로 표기를 위원님들이 해 주십사 하는 보충설명을 해 주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말하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전에 심의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압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수정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여기서 보면 출장경비가 4,818만 2,580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여행경비까지 다 합친 부분들을 보면 6,528만 2,580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용만 위원** 경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총 경비는 4,818만 2,580원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진우** 11페이지에 보면 여행경비 총계가 6,528만 2,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김병훈 팀장님께서...

○**위원장 김진우**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간사 김병훈** 여행경비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1페이지 출장 주요정보 요약 부분입니다.

여비 부분과 금액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량 임차료, 통역비, 기타비용의 경우에는 여비 이외의 비용이라 다른 항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을 포함하시면 6,528만

2,580원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여비 산출 부분을 제외한 실제로 필요한 다른 경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 6,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뒤에 보면 출장경비의 적정성 부분이 나오지요. 처음에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심사기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출장의 필요성 ‘1, 2, 3’이라고 하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예, 아니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진우**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병훈** 별표 출장의 필요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무국외출장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 항목이라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9대 의회에서는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매년 해외시찰이 반복되고 있고 사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현지에 가서 그 현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번입니다. 해외 사무소 또는 해외 교육기관 파견 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해외 사무소나 해외 기관 파견 인력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이 구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의정과와 관련성,

○**위원장 김진우** 하나씩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항목에 보면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일 목적이라는 것이 호주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간 것 같은데요.

○**간사 김병훈** 예, 미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그러면 과거에 호주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간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김병훈** 호주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그러면 이것은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냐고 묻는다면 없는 것이 맞지요?

○**김용만 위원** 그것은 없는 것이 맞고요. 4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출장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천구의회는 도시 산업구조 개편, 지역균형발전, 스마트도시 기반 확대, 기후위기 대응, 복지정

책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출장계획이 호주로 잡혔던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갔던 것은 출장목적이 틀리고 똑같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연마다 국외출장을 가셔서 금천의 실정에 맞게끔 배우고 오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의 필요성,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 가라고 질의할 때는 “아니오”가 맞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김병훈 간사님께서 건건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 아니오”로 답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훈 그러면 제가 한 건씩 간단히 설명드리고...

○김용만 위원 예,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심사표인가요? 심사표는 이것이 아니지요?

○주무관 하성진 심사기준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진우 예.

○주무관 하성진 심사기준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진우 이것이요?

○주무관 하성진 예.

○위원장 김진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심사하나요?

○주무관 하성진 예, 이것을 토대로 심사합니다. 이것을 100%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쓰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주무관 하성진 심사할 때 참고하시는 자료입니다.

○김용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제출용입니까?

○주무관 하성진 제출용은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위원들이 사인을 하고 나서 제출하면 쓰이는 용도가 이번에 공무여행을 갈 때 자료로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제출용이 아니지요?

○**주무관 하성진** 예.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이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요?

○**주무관 하성진** 참고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우** 맨 밑에 보시면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2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했으면 이것은 “아니오”가 되는 것이니까 안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적절한 것이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아니오”가 많으면 부적절하다, 자료에서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 아니오”를 다 체크해서 “예, 아니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은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결국은 출장 가는 것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맨 밑에 “아니오”가 많으면 부적절하다는 문구는 삭제하시고요.

○**주무관 하성진** 이것은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표의 심사기준표와 같이 일률적으로 ‘예/아니오’ 방식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용만 위원** 삭제하시고요. 심사기준을 저희 심의위원들이 하고 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진우** 이것이 심사기준표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기준표가 다시 만들어져서 외부에 나갈 때는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오”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오”가 많으면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예, 아니오”를 타당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해외로 공무출장을 가는 것이 맞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때는 다른 용지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이것을 간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처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한다면 “예”,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아니오”로 체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동

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그러면 이것은 방문한 사례가 없으니까 “아니오”라고 해야 긍정적인 답변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관 위원** 출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것이 결국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우** 그래서 이것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심사기준 제8조에 관련한 규정사항은 어디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주무관 하성진**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다 타 구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주무관 하성진** 타 구에도 개정된 곳을 보면 똑같이 이 별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어디 의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엇그저께 심의를 했었는데 그곳의 경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것인지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주무관 하성진** 저희 규칙 제8조 내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전면 개정했는데 행안부 표준안을 대부분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목에 읽어주고 “예, 아니오”는 위원님들이 체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 문제가 길게 갈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진우** 두 번째 ‘지방의정과의 관련성’부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병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해당 부분은 계획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김용만 위원** 그냥 쪽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 아니오”는 할 것이니까요.

○**간사 김병훈** 알겠습니다.

2번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항목입니다. 기관 섭외 시에 면담자를 정한 부

분입니다.

3번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입증됐는가’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관 위원**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이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해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장 김진우** 그것은 우리 출장 일정에 보면 예정 인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병훈**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출장 일정 중에 저희가 공식기관 방문으로 다른 색깔로 음영을 넣어서 총 5개소를 지정해 놓았고요. 해당 부분은 이미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계속 읽어주세요.

○**간사 김병훈**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했는가’ 이 부분도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과거의 방문 사례도 없고 현재 계획상으로도 동일 기관을 방문할 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3번,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해당 부분도 직접 가서 각 기관마다 특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4번, ‘방문기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식기관 방문 부분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번, ‘일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이 부분도 주말 일정을 제외한 평일 일정에서 일일 1개 이상 설정하였습니다.

6번,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해당 부분도 3개 도시를 돌면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자의 적합성입니다.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은 적합한가’ 해당 부분은 예산 편성 시부터 의원 열 분, 직원 네 명으로 적정선으로 선정하고 있고, 추가로 더 가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출장 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해당 부분은 8페이지를 보시면 출장자마다 해당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출장기관 및 시기의 적시성입니다.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을 책정하였는가’ 해당 부분은 예산과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관들을 최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번,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시기는 적합한가' 해당 부분은 기관 편성 부분에서 고려한 부분이고 방문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번, '국내외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훈련이나 다른 국내외적으로 감염병 등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경비의 적정성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 편성 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조금 전에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으로 11페이지와 산정 내역을 보시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권익위에서 해당 구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번,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해당 부분은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3번,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국외공무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해당 부분도 출장지에서 사적인 개인비용 지출을 제외하고, 개인부담 없이 예산으로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입니다.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호주에 대한 부분을 현재 확인한 바, 호주 대사관에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번,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이 부분도 3개 도시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 간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전부 다 이해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심사기준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관련 서류라고 이것을 심사기준에 내놓는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다 "예"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그런 말씀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출장에 고정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것은 위원들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검토를 다 마치신 것으로 알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사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연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만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우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외국으로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과연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면 정말 보고 오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맞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신문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판을 많이 하지요. 가서 여행이나 하고 오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오나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옵니다. 놓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개최하는 것이 옛날에는 기존 여행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즉, 스케줄은 어디 번지르르하게 공무기관 어디, 어디 간다고 해 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옛날에는 여행사,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제가 물었더니 행안부 위원회에서 이번에 금천구 공무국외출장 프로그램을 다 짜주신 모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잊그저께 신문에서 들어서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 의원들이 이번에 공무여행을 다녀왔는데 비행기 스케줄에서 나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코노미라고 기재를 해서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됐는데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 과연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정말 알차게 호주에 가서 좋은 여행을 하면서 좋은 내용을 보고 아까 개요에서도 읽어드렸습시다만 도시산업 개편, 지역균형발전, 스마트도시 확대 기타 등등 좋은 것을 접목시켜 주리라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우** 혹시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김성관 위원**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데요.

김용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보면 열 분이 6,500만 원을 쓰는데 한 분당 650만 원을 가지고 6박 8일 여행을 갑니다. 개인 여행을 가도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공무출장을 다녀왔을 때 무엇을 봤고, 이것을 금천구의회에 어떻게 적용해야겠다, 응용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간사 김병훈** 공무국외출장이 끝나고 나면 해당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보고서에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들을 한 페이지 또는 더 많은 양을 내신 경우도 있어서 현재 보고서들은 의원님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관 위원** 보고서를 각자가 쓰는 거예요?

○**간사 김병훈**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목적이 같은 곳은 한 분이 쓰시는 파트도 있고요. 의견을 내시는 것은 자율적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셔서 실제 보고서에도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관 위원** 금천구의회가 다녀오신 출장은 다른 지역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보여

주셔야 떳떳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 다녀오셔서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와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복지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6,500만 원은 아깝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이번 출장을 다녀오시면 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병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이번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눈에 확연히 띌 수 있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김성관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고 온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병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게 와서 본인들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의회 의원이 열 분 인가요?

○간사 김병훈 열 분의 의원입니다.

○김용만 위원 열 분의 의원, 정책지원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비서 역할을 해 줍니다. 여행을 갔다 온 의원들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대충 적어주면 자료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 기자들한테 보내주면 보고 취재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는 구의회가 있고, 하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 의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김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간사님은 올려놓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작년 그 기사가 얼마나 낫을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9월 17일에 여행 잘 다녀오셔서 김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올라와서 많은 기사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돈 많이 들여서 공무여행 하고 와서 보고 접목하는 그런 기삿거리가 많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관 위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심사위원들이 책임지고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녀와서 끝날 일은 아니고 다녀오셨을 때 각자가 준비해서 이번에 갔다 왔더니 어쨌고, 나는 어떤 것을 금천구에 응용해서 국민들 복지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것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더라도 헛것을 보지는 않거든요.

가서 봤을 때 무언가 자꾸 자기들이 생각해 보고, 이것이 결국 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이런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다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심사위원이 이런 심사만 할 것이 아니고 다녀오셨으면 각자 의원님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가벼운 발표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만 위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의회가 전국에 234개입니다. 234개 의

회에서 방금 김성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 공무여행을 1년마다 한 번씩 갑니다. 비싼 돈 들여서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한 것은 저는 언론인으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론사만 42년 차입니다만 한 번도 그런 기사는 써본 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상학 위원** 금천구가 이번에 다녀오셔서 그 기록을 깨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진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의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더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의가 아니고 조금 더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성관 위원** 여행을 갔다 오면 즐겁게 갔다 와야 하는데 눈치를 보고, 갔다 오시는 의원님들도 괜히 언론에 두들겨 맞고 자꾸 이것이 반복이 돼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의회가 나서서 투명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천구가 밖에 드러내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실천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우** 김성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심사 대상자가 10명이 아니고요. 사무국 직원이 4명 있어서 14명입니다. 혹시라도 속기록에 들어가 있을까 봐서 10명이 아니고 14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적으로 의장님도 이번만큼은 다녀와서 각각의 의원님들이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주신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인 부분들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2025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 연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2025년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해외 비교시찰이 금천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진우 박기영 김성관 김용만 이상학

○**출석사무국직원 (2인)**

김병훈 하성진